

8과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들어가면서」

가짜가 판치는 시대이기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씀이 더욱 깊이 와닿습니다. 사랑은 거짓을 멀리하고 진리를 따르며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짓과 불법은 사랑을 해치는 가장 큰 적입니다. 거짓으로 포장된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랑은 맹목적 이어서는 안 되고 진리와 함께 서야 합니다. 사랑은 진실할 때 힘을 얻습니다. 사랑은 결코 홀로 서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국진, 『사랑』 중에서]

「사랑과 진리의 듀엣」

사랑과 진리는 함께 노래합니다. 만약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 선언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모든 것을 견디다고만 했다면 그것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하는 사랑에는 완벽한 균형이 있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나눔 질문

내 삶에 ‘진실된 조연자’가 있었다면 나누어 봅시다. 그분의 말씀과 조연이 내 삶에 유익이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다른 사람의 조연과 무엇이 달랐나요?)

1. 진리와 사랑: 가만히 둘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용]

진리를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상대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면 죄악으로 무너져 가는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고, 잘못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배경]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권면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그 편지를 쓰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2:4 내가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에 고린도 교회에 내재하는 여러 가지 잘못과 죄악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나눔 질문

누군가에게 꼭 해 주어야 할 진실한 말이 있었지만, 결국 하지 못하고 지나간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왜 그 말을 하지 못했을까요?

「생각해보기: 진리를 지키는 교회의 자세 “권징”」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개혁 신학자들 사이에 중요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교회이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개혁자들은 교회의 외형이나, 전통, 규모와 영향력이 참된 교회의 표지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기독교 전통(개신교)은 참된 교회의 표지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1) 진실한 말씀의 선포 2) 참된 성례의 집행 3) 진실된 권징(discipline)의 실행입니다. 특별히 개혁자들은 교회가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면서도 교회 안의 죄를 방치하고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참된 교회라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권징은 말씀의 선포가 교회의 실제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표지로 이해되었습니다. “권징”이 사라진 교회, 교회가 사람을 두려워하여 성도의 잘못을 책임지지 못하는 동안, 교회는 약해졌고, 사람들은 더 약해져 갔습니다. 혹시 이것은 교회에 “권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참된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은 아닐까요?

[적용 질문]

우리 교회가 권징의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된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 봅시다.

2. 권면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자세

[고린도 배경]

바울의 권면은 고린도 교회의 반발을 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총 4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중 첫 번째와 세 번째 편지는 유실되었고,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이고,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첫 번째 유실된 편지에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권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로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편지를 받은 교인들이 오히려 바울의 사도권과 사역의 정당성 등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지만, 바울은 후에 이 방문을 painful visit이라고 기억할 만큼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적용 질문]

내 안에 고린도 성도와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다른 사람의 조언과 권면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아래의 단어 중 세 개만 선택해 봅시다.

자존심 · 교만 · 방어심 · 상처 · 불신 · 두려움 · 열등감 · 체면
고집 · 자기 확신 · 오해 · 관계의 불편함 · 인정받고 싶은 마음 · 자기합리화

3.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 봅시다

1)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 된 우리가 진리를 떠나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을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6-11 ⁶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⁷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⁸징계는 다 받는 것이 거를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⁹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¹⁰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¹¹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2)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로마서 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에 죄의 값을 요구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친히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공의롭지 못하며, 사랑 없는 진리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진리와 사랑은 함께 노래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4. 서로 사랑합시다

[고린도 배경]

바울은 눈물로 권면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교회를 향한 책망은 그의 심장을 뚫고 나온 깊은 사랑의 권면이었습니다. 교사나 동료의 마음이 아니라,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눈물의 사랑이 결국 고린도 교회로 회개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고후 7:8-9). 할렐루야!

[적용하기]

우리는 마땅히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진리의 권면은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네 번의 편지를 쓰기까지 끝까지 교회를 품고 사랑했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랑과 같았습니다. 우리의 권면도 이런 과정의 결과로 나와야 하겠습니다.

나눔 질문

나의 권면에는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스스로를 돌아보며, 진정한 사랑이 내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권면 10계명

1. 사랑을 동기로 시작하라(고전 16:14, 고후 2:4)
2. 눈물과 아픈 마음으로 권하라(고후 2:4)
3.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라(갈 6:1, 마 7:3-5)
4. 거짓 없이 진실하게 말하라(롬 12:9, 엡 4:15)
5. 은밀하게 1:1로 시작하라(마 18:15)
6. 회복과 거룩함을 목적으로 두라(히 12:10-11, 갈 6:1)
7. 온유함과 친절함으로 전하라(딤후 2:24-25, 벧전 3:15)
8. 듣기를 먼저 하고 인내로 기다려 주라(약 1:19, 고전 13:7)
9. 끝까지 공동체로 품고 함께 집을 지라(갈 6:2, 롬 15:1)
10.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되게 하라(고전 14:12)